

실패해도 너를 사랑한다.

이 책에 적힌 방법들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북이처럼 하나씩 천천히 해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토끼처럼 빨리 잘 해놓고 교만해져서 주님을 게을리 찾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여도, 실수를 많이 하여도, 죄를 짓고 또 지어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처럼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피해 도망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세워주시고 씻어주시고 가장 좋은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주시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십니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누가복음 15:21-24)

성령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오직 회개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해서 잘난 체하며 대접받기를 원하는 교만한 혼보다 통회하는 영을 더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가 걷다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하며 부모를 떠나는 아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주는 것은 마귀이니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시간 이전에 계신 주님 앞에선 100살도 안 되는 어린 아기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명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내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걸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어린 아이는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빌면 끝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짓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받아주십니다 자신을 책망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로 방언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거듭나고 나서도 악한 죄를 셀 수 없이 지었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질을 죽이지 못해 실수를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저를 아이로 보고 용서하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만 확인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께서서는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대로 또 사랑받는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오직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서는 용서하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